

주제강의: 교회 사역 안에서 여자의 섬김 Women Serving in the Ministry of the Church - 4

(adapted from “Report of the Ad Interim Committee on Women Serving in the Ministry of the Church to the For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2017))

1. 사도 시대의 여자의 역할

2) 디모데전서 1 Timothy 2:8-15 - continued

d. 2:11-12 - 배움, 순종, 허락 Learning, Submission, and Permission - continued

- i. “가르치다”(didasko)라고 번역되는 동사는 어떤 이를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뜻인데, 바울 서신, 특히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에서는 그 가르치는 내용은 보통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들이다.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가장 신뢰받는 목회 사역 대행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쓴 세 통의 편지는 목회서신이라 불린다. 교리를 내용으로 하는 가르침의 좋은 예 중의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온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유사한 내용으로 디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쓴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 ii. “가르침”이라는 명사도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신자들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부르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살전 2:15). 가르침 또는 전통은 사도들의 메시지가 조심스럽게 구두로 또는 편지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갈 1:6-12).
  - a) 갈 1: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 iii. 그러므로 바울이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할 때는 그 배경으로 우리의 가장 거룩한 종교의 교리들과 이러한 진리들을 가르치고 선포할 임무가 맡겨진 장로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위해 부름 받은 이들은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살핌으로써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분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장로들은 말씀과 선포,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힘쓴다(딤후 5: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포인트는 남자가 모든 가르침을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아무 것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에 의해 시험되고 인증되고 성별된 남자들의 주요 소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수호하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딤후 2:24-26; 참조 행 6:2)
  - a) 딤후 2:24 주의 증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 b) 행 6: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 iv. 바울은 또한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한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authentico)의 의미는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고 모든 헬라어 고전에 100 번 사용됨) 분명히 설명하기 힘들다. 이 단어는 어떤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자는 “남자들 위에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만, 여러 증거들을 보면 “다스림” 또는 “권위를 사용함”이 가장 좋은 정의로 보인다. 크리소스톰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는 하와가 “그 때 한 번 아담을 잘못 가르쳤으며” 여자가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자가 그 때 한 번 권위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리소스톰이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 “잘못”이라는 말을 더한 이유는 “권위를 사용함”이라는 말 자체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느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만일 authentico 라는 말이 원래 권위를 남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쓸 때) 여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셋째로, 문법적 구조가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번역해야 함을 가리킨다. “가르침”과 “권위를 행사함”은 헬라어 접속사 중 *oude* 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다. *Oude* 는 부정하는 접속사이다. “and not”, “neither”, “nor”의 의미를 가진다. *Oude* 는 또한 흥미로운 문법적 기능이 있는데, 두 동사를 연결할 때 둘 다 그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둘 다 자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동사와 긍정적인 동사를 연결하지 않는다. 다음 문장들을 고려해 보라:
- You may neither eat your food nor drink your juice until we pray: “Eat” 과 “drink”는 모두 긍정적이다. 헬라어에서는 *oude* 로 연결된다.
  - Neither steal nor destroy your borther’s toys.: “Steal”과 “destroy”는 모두 부정적이다. 헬라어에서는 *oude* 로 연결된다.
  - Neither call nor bother me: “Call”은 긍정적이고, “bother”는 부정적이다. 헬라어에서는 *oude* 로 연결되지 않는다.
- vi. 디모데전서 2:12 에서는 “가르치는”과 “주관하는”을 *oude* 로 연결한다. 그 말은 둘 다 긍정적이거나 둘 다 부정적이라는 말이다. “가르치는”은 분명히 긍정적이므로 “주관하는” 역시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딤후전 2:12 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다. 바울은 단순히 여자가 권위를 남용해서 잘못 다스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교회 상황에서는 여자가 다스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드할 수 있으나, 남자가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남자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vii. 권위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 사도적인 권한은 지교회의 삶과 리더십에서 일관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 시행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르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그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PCA 안에는 “권위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각 노회와 당회가 이 이슈에 대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들의 확신을 실천해야 한다 (롬 14:1-8)
- 롬 14: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 e. 2:13 – 남자 리더십의 이유 Reasons for Male Leadership
-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에 남자가 리더십을 가지도록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언급하며 바울은 첫째 원칙들에 호소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결혼과 이혼에 대해 질문 받으셨을 때 창조로부터 추론했다 (마 19:3-9; 참조 창 1:27; 창 2:24).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1 장에서 나와 여자의 역할을 설명하며 창세기를 인용한다. 이 창조사역에서의 인용은 교회의 원천적 규정을 가리킨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 의해 더 설명된다. 하지만 이것은 여자가 본질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더 아래에 있음을 가리키지 않는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갈 3:28). 남자와 여자는 가치와 목적에 있어서 동등하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됨은 남자와 여자가 유지하는 역할의 차이를 지워버리지 않는다.
    - 마 19: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 b) 갈 3: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f. 2:13-15 – 여자의 역할 Roles of Women

- i.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 ii. 이 본문은 매우 어렵기로 유명한 구절들이며 해석도 다양하지만, 바울이 출산이라는 창조 규례의 유효성과 복이 계속된다는 것(창 1:28; 3:20; 4:1)과 믿는 여자들에게 타락의 저주가 완화되는 것을 긍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최소한 하나님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 안에서 여자를 복주시고 보호하신다.
- a)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b) 창 3: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 c) 창 4: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 iii. 바울은 왜 갑자기 여자가 권위적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고 장로들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한다는 토픽에서 구원과 아이 낳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는가? 아마도 그는 타락에서 있었던 두 가지 창조 역할 전환(role-reversal) 중 두 번째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 iv.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을 다스려야 했다(창 1:28). 하지만 타락의 사건 안에 한 동물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라고 강요한다. 그들이 이 역할 전환에 굴복하였을 때 세상은 죄와 비참함 가운데로 떨어졌다(롬 1:25).
- a) 롬 1: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 v. 디모데전서 2:14 에서 바울은 두 번째 역할 전환을 주목한다. 하와는 뱀에게 속았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아담이 남편과 언약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딤후 2:13)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금지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 2:15-17),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다. 모세는 분명히 설명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 3:17). 바울이 딤후 2:11-15 에서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창세기 1-3 장에 근거한다. 하와가 속았지만 아담에게 책임이 있었다 (롬 5:12, 19; 고전 15:21-22). 왜냐하면 그가 언약 수행자이자 대표로서 역할을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과 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에도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다. 하와가 속았지만 아담이 명백한 명력을 불순종한 것이다. 그의 죄가 더 컸다.
- a) 창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b)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c) 고전 15: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 vi. 그러므로 바울이 딤펀 2:13-15 에서 말하는 것은 2:11-12 에서 명령하는 것의 근거를 설명하며 그것이 불순종 되었을 때 결과를 경고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질서와 오류를 만들어내며 반대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복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 vii. 그런데 바울은 집과 가정에서, 또 그 밖에서도, 여자의 섬기는 역할을 긍정하고 있다. 루디아라는 사업가 (행 16:14-15)와 뵈뵈라는 후원자(롬 16:1-2)는 바울이 매우 높이 평가한다. 그들의 직업이나 위치에 대해 전혀 책망이나 잘못이라는 평가가 없다. 잠언 31:16-24 에서 여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높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더 나아가 바울은 크리스천이 도식능로 지내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고전 7:32).
  - a) 행 16:14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 b) 롬 16: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 c) 잠 31:16 밭을 살펴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9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0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1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흥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22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3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24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 d) 고전 7:32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도... 38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나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 g. 남성-여성 협력을 위한 결론 Conclusion for Male-Female Partnership
  - i. 디모데전서 2 장이 여자와 사역에 관한 모든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 보았다. 여자는 믿음 가능에 배워야 하며 그들의 지식을 어떤 상황에서 나누어야 한다. 그들은 조직적인 교회 안에서 조된 교사나 신앙의 수호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였고, 그 안에서 여자들은 신앙의 삶을 살며 크게 성장하게 된다.